

한나라 '오늘 직권상정'에 민주 대표 '단식' 초강경 맞불

미디어법 '강 대 강'... 충돌 초읽기

“구시대적 억지 투쟁” “민생 무관... 국민의 뜻”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방침과 관련, 19일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등 초강경 대응으로 맞불을 놓았다.

더욱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까지 강행 처리에 반대를 표시,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견지하고 있어 국회 내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민생과 무관한 미디어 관련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발 방지, 즉발방식은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언론 관련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여론수렴’과 ‘합의처리’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디어 관련법 하나 때문에 국민은 분열되고,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과탄상항이 초래되고 있다”며 “지금엔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정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바로 단식에 들어갔으며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본회의장 주변에 대기하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비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동조 단식 또는 삭발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협상이 되면 안되든 20일 미디어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상 시한은 이날 자정이며, 협상이 안되면 내일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협상 불발시 국회법상 상임위 처리, 국회 법사위에서 자구 및 체계 심사, 본회의 처리 가운데 상임위 법사위 절차를 건너뛴 본회의 강행처리를 뜻한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 정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자기 역사를 관철 시키려고 밥을 거르는 어린 아이 같은 투쟁”으로 평가 절하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지도자로서 지도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방식까지 답습해 여론을 호도하며 주의를 끌려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며 “때 쓰지 억지 투쟁 하지 마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영수회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20일의 사일정을 어떻게 할지 협의의 이날 중으로 완료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했다. 김 의장은 홈페이지 글에서 “방송법은 민생과 직결된 법은 아니다.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방송)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인데 협상·타협하면 못할 게 없다”고 협상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DJ·盧 정부 10년 재평가 한다

평가위 15명 구성

민주당이 최근 ‘민주정부 10년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마치고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10년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뒤 지난 한 달간 ‘민주정부 10년 평가위’의 인선 및 운영방식을 논의해왔다.

임재정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인 평가위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당내 인사는 임 위원장이다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선숙 의

원,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안희정 최고위원 및 백원우 의원, 그리고 386 원외인사인 이인영 오영식 전 의원 등 7명이다.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정재구(성공회대)·한상진(서울대) 교수 등 진보성향의 학자 및 전문가 8명이 외부인사로 합류했다.

평가위원회는 오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평가위는 앞으로 6개월간 정치·사회·경제·통일외교 등 4개 분야별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연구 및 평가작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민주당의 노선이 될 ‘뉴민주당 플랜’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9월 초에는 한 달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민·사회단체 및 범민주진영을 포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당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의료진에 “감사합니다” 고마움 표시

호흡기 떴고 정상 호흡... “건강 수치 정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의인 세브란스 병원 장준 교수는 19일 “(김 전 대통령) 호흡기 제거 후 온화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2시간 가량 주무셨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모든 건강 수치가 정상범위고 가끔 기침을 통해 가래를 잘 내보내는 등 많이 안정된 모습”이라며 “중환자실에 있는 다른 환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서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

후 여사를 비롯한 가족·지인과 면회한 뒤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김 전 대통령의 상태는... ▲처음 입원했을 당시(13일)에 비하면 회복이 덜 된 편이지만 인공호흡기를 부착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이다.

산소포화도는 99~100%를 기록하고 있고 혈압, 맥박, 체온 등 다른 건강 수치들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 ▲콧줄을 통해 영양 공급을 계속 하고 있으며 항생제도 투입하

고 있다. 입원 전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심장 투석도 계속 하고 있다.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나... ▲호흡기를 떴고서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가족과도 잘 얘기를 나누었다. 간호사들에게도 “능력있다”, “일으켜 달라”고 말하는 등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다.

-다시 상태가 나빠질 수 있나...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는 남아 있다. 만약 발생할 경우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을 감지기 힘들 수도 있다.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은 언제쯤... ▲현재 추세로 상태가 호전되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주일쯤 전후해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親李계와 정면대결 준비용?

■ 박근혜, 미디어법 강행처리 제동

여야의 미디어법 대처 정국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전 대표의 존재가 19일 또다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시도에 반대의사를 밝힘으로써 당내외의 큰 관심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19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데 대해 “참석 여부에 대해 그런 말 한 적은 없다”

며 “참석하게 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친박 의원이 전했다.

박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여야 대치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으며, 한나라당내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형오 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박 전 대표의 적극적 행보는

과거 신중 행보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한 친박 의원은 “원칙을 중요시하는 박 전 대표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일 뿐 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충청연대론과 9월 전대론이 다시 불거지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박 전 대표의 위상을 스스로 격상시키면서 연말에 있을지도 모를 친이계와 정면대결을 준비하기 위한 전열 정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친이계와 결별을 준비하는 명분 쌓기용 행보라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몽준, '발품정치'로 지지기반 다진다

시도당·당원회 보고회 특강

한나라당 정몽준(사진) 최고위원이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부터 서울·강원·인천·경북·부산·울산 등 시도당별 국정보고대회, 종로·마포·의정부·하남 등 당원협의회 단위의 국정 보고대회에도 참석해 특강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2위로 지도부에 입성했으나 당내 기반이 아



작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바다 지지층 다지기, 지역현안 파악, 대중연설 경험 확대 등 노리고 ‘정몽준 알리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국정보고대회 특강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성과와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 미디어법과 4대강 살리기의 필요성을 강조

해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핵문제 해법, 계파가 아닌 정책중심의 정치를 제시하는 등 ‘정몽준표 정책정치’를 통해 확실한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이는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양대 계파의 틈바구니에서 단거리로 조기 전당대회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권주자로서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의 홈페이지(www.haemil.re.kr)를 개설해 네티즌과의 소통폭을 넓히는 등 온라인 정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일반직 특별채용 모 집

향후 3년간 중앙부처 1만명 대상 특채선발 사무가능직 5000명 일반직 된다!!

- 시험일자 : 행안부산하 10월 24일 시행
- 시험과목 : 행정학개론, 사회(2과목)
- 타, 중앙부처도 곧 시행예정

강 의 시 간 표

- 주말반 : 토·일요일 : 10:00~17:30분 까지 (주 과목당 7교시 2개월 완성)
- 교수진 : 행정학개론 임강석, 사회 정형윤교수팀

= 無等은 높은 합격률을 앞세워 갑니다. =

개강 • 주말반 : 7월 18일 10:00~ ※ 수강료 : 2과목 완성 30만원(기간 : 2개월)

귀하의 꿈에 그린 정직·합격! 無等에서 잡아라!!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동부경찰서 뒤(동양생명 옆) ☎ 222-4560

Canon 호남총판
OPEN 기념 특가판매

이제 전문매장에서 캐논 정품을 판매하세요!

Full HD EOS 500D DSLR

사진으로 소유할 것인가?
영상으로 소유할 것인가?

Full HD 고품질 동영상 촬영

- ▶ 1510만 화소 CMOS센서
- ▶ Digi4 이미지 프로세서
- ▶ ISO 3200 고감도 촬영 지원(확장시 12800 지원)
- ▶ 3인치 92만도트 대형 클리어뷰 LCD(3중 구조 반사방지 기능)
- ▶ 편리한 촬영을 위한 라이브뷰 기능(얼굴 자동 인식)
- ▶ 크리에이티브 전자동 촬영 모드 및 퀵 설정 지원
- ▶ 렌즈 주변 조도 보정 기능
- ▶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구입문의 **062)350-8397**
(주)HD코리아 광주시 서구 금호월드 1층 정문입구

공장급매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 대지 : 13,200㎡ (약 4,000평)
- 건물 : 6,600㎡ (약 2,000평)
- 냉동저온창고 3,300㎡(약 1,000평)
- 일반창고건물 3,300㎡(약 1,000평)
- 현재 냉동저온창고 성업중
- 물류가능
- 기계기구 일체 영업권 포함 급매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3617-8810

바르면 뜨거워지는 夫婦 (센넴)

초 고령화 사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후에도 부부관계를 중요시하며 노인들에 성관심도는 70%나 높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세트는 최 신제품만 3중세트로 구성 되어 20~80대 노후까지 오감도 만족을 드립니다.

① 요부로 유희하며 환회가 넘치는 남녀공용 속궁합과
② 수입한 원료로 복용하면 성능력에 좋은 분말100%와
③ 사용즉시 발기되어 우람하고 당당한 기구 센넴이 있어 부부가 더욱 뜨겁게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미성년자 상담은 거절합니다.)

상담 02-2632-9887/02-2677-0231
전화 010-3518-8995/010-5296-4114
농협 569-12-034626(배의자)